



미 증시, 저가 매수세 유입에도 인플레 부담 등으로 혼조세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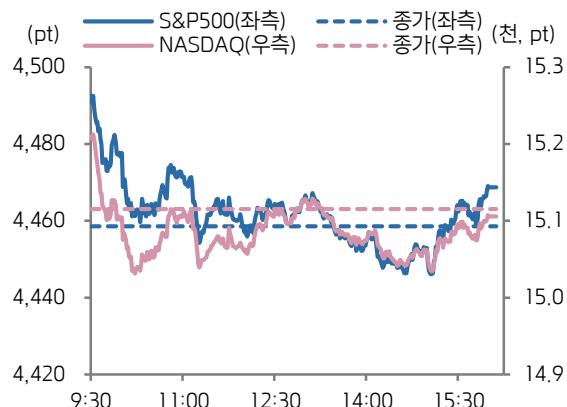
9월 13일 (월) 미국 증시는 최근 5거래일 연속 약세에 대한 저가 매수세 유입에도, 소비자물가, 애플 아이폰 공개 등 주요 이벤트들을 앞둔 대기심리 속 증세 관련 정치 불확실성에 영향 받아 혼조세로 마감.

금주 주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OPEC 원유시장보고서 외엔 특별한 미국, 유럽 지역의 경제지표가 부진하며 관망세가 짙었음. OPEC은 내년 글로벌 원유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 도달할 것이라는 내용을 공개하며 유가와 에너지 섹터의 강세 견인. 이날 S&P500은 장중 $-0.3\% \sim +0.8\%$ 사이, 나스닥 지수는 $-0.5\% \sim 0.6\%$ 사이에서 등락하는 등 장중 변동폭이 컸음(S&P500 $+0.23\%$, 다우 $+0.76\%$, 나스닥 -0.07% , 러셀 2000 $+0.59\%$)

S&P500 지수는 5 거래일만에 상승 마감, 업종,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를 보임. 에너지(+2.9%), 금융(+1.1%), 부동산(+0.5%)이 상승한 반면 헬스케어(-0.6%)와 유트리티(-0.2%)는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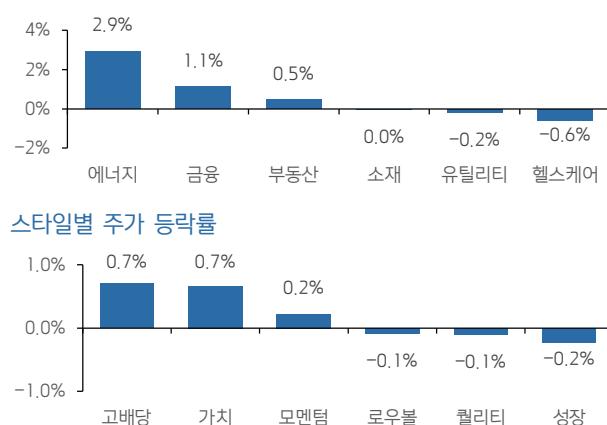
다만 아시아 증시에서 중국 소호차이나 딜 무산과 알리페이 분할 압력 이슈로 시장에 부정적인 뉴스플로우가 더 많았음. 또 과거 9~10 월이 글로벌 증시의 조정 구간이 많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글로벌 IB들의 콜로 경계감이 확대됨. 추가적으로 다음주 22 일 FOMC 테이퍼링에 경계심도 여전히 증시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모습.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특징주

화이자(-2.2%): 로이터에 의하면 5~11 세 아동들을 위한 코로나 19 백신이 10 월에 승인될 수 있을 것에 대한 실망에 하락.

모더나(-6.6%): 코로나 19 부스터 샷이 현재 시점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FDA, WHO 과학자들의 보고서 영향으로 하락.

알파벳(-2.5%), 아마존(-0.4%), 페이스북(-0.6%), 알파벳(+1.1%): 골드만삭스 투자의견 "매수", 커버리지 시작에 불구하고 알파벳만 상승 마감.

나이키(-2.5%): BTIG 가 공급 차질 이슈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한 여파로 약세

버진 갤럭틱(-3.5%): 항공기 부품사의 결합 가능성 경고로 첫 민간 우주 비행이 연기됐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하락.

마라톤 오일(+7.1%):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주 큰 폭 강세. APA 와 옥시텐탈도 각각 7.8%, 6.6% 상승. WTI 유가는 8 월 이후 처음으로 70 달러 상회.

애플(+0.4%): 지난 금요일 인앱결제 금지를 둘러싼 미 연방법원의 판결이 예상보다 동사에게 우호적이라는 의견들이 제기된 영향으로 반등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468.73	+0.23%	USD/KRW	1,175.93	+0.59%
NASDAQ	15,105.58	-0.07%	달러 지수	92.61	+0.03%
다우	34,869.63	+0.76%	EUR/USD	1.18	+0%
VIX	19.37	-7.54%	USD/CNH	6.44	+0.01%
러셀 2000	2,240.78	+0.59%	USD/JPY	110.00	+0.01%
필라. 반도체	3,449.68	+0.97%	채권시장		
다우 운송	14,448.56	+0.57%	국고채 3 년	1.530	+3.3bp
유럽, ETFs		국고채 10 년		2.045	+5bp
Eurostoxx50	4,189.53	+0.46%	미국 국채 2 년	0.213	+0bp
MSCI 전세계 지수	737.28	-0.31%	미국 국채 10 년	1.326	-1.5bp
MSCI DM 지수	3,122.07	-0.45%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308.94	+0.69%	WTI	70.68	+1.38%
MSCI 한국 ETF	84.24	+0.75%	금*	1794.7	+0.1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 (*)는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75%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27%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31%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74.2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심리 확산 가능성
2. 지난주 이후 주가 폭락이 지속된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기술적 반등 출현 여부
3. 전거래일 낙폭이 과도했던 중소형주들의 저가 매수세 유입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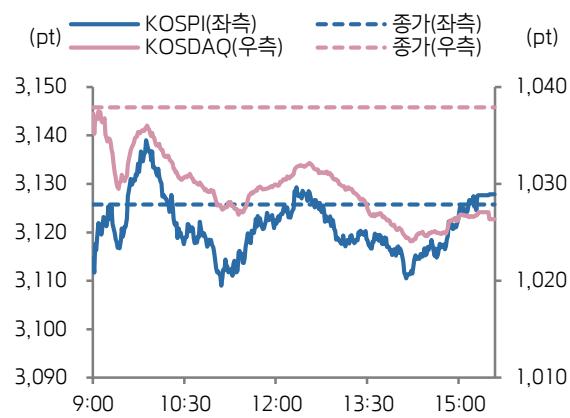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민주당의 세금 인상안 공개 이후 증세가 주식시장에 부담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재차 부각되고 있는 모습. 연방소득세(37%→39.6%, 연소득 40 만달러 이상)를 제외하고는 법인세(21%→26.5%, 바이든 제안 28%), 장기자본이득세(23.8%→26.5%, 바이든 제안 28%), 미국 기업 해외투자수익(10.5%→16.6%, 바이든 제안 21%) 등 대부분 세제 항목이 바이든이 공약으로 제안 했던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 물론 3.5 조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음. 그러나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 중에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에 부담이 크게 되지 않는 선에서 증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

증세를 둘러싼 미국발 정치 불확실성은 중기적인 사안이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급등 논란이 금일 시장의 중심에 있을 것으로 예상. 뉴욕 연은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향후 12 개월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기존 4.8%에서 5.2%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8 월 소비자물가(예상 5.3%) 결과에 대한 시장이 관심이 집중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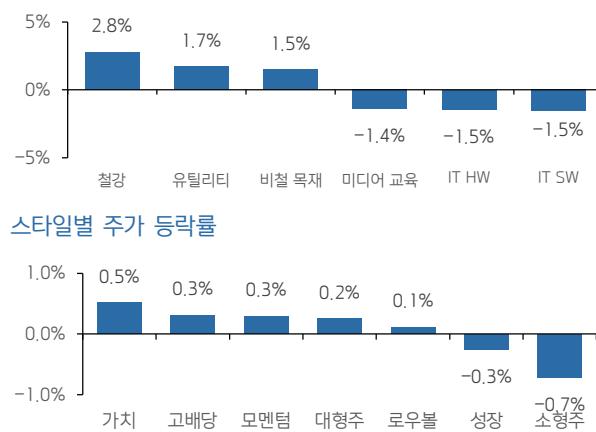
이상의 요인들을 반영 시, 금일 한국 증시는 전거래일 낙폭이 과도했던 중소형주들을 중심으로 기술적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증시 흐름은 정체될 것으로 예상. 미국의 소비자물가 경계심리, 차주 장기 연휴를 앞둔 수급 주체들의 관망심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 다만, 9 월(~10 일) 수출 호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반도체 등 주력 수출 업종들의 실적 기대감은 유효하므로 금일 대형주들이 지수 하단을 지지하는 역할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원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지어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짰습니다.